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27호 [루게 제25105호] 주제 104 (2015)년 11월 23일 (월요일)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사회주의바다향기 차넘치는 조선인민군 제313군부대 관하 8월 25일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자랑찬 선물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으로 온 나라가 세차게 끓어번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바다만풍가》의 노래와 더불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민사랑, 병사사랑을 길이 전해가고있는 조선인민군 제 313군부대 관하 8월 25일수산사업소가 천지 개벽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식경제시대와 사회주의 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현대화되였으며 물고기잡이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조선인민군 제 313군부대 관하 8월 25일수산사업소를 현지 지도하시였다.

조용원동지, 조남진동지, 한광상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군부대의 지휘관들과 수산사업소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산부문에 서부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물과구를 열어나갈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그 가치를 인민군대 수산부문이 들고나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2013년 한해에만도 조선인민군 제 313군부대 관하 8월 25일수산사업소를 2차레나 거둬 찾아주시며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으며 이곳 수산사업소를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현대적인 수산기지로 변모시킬것을 직접 발기하시고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안겨주신 영예로운 전투인무를 심장깊이 새기고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군부대와 사업소의 일군들, 종업원들, 개건공사에 동원된 군인 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8월25일 수산사업소가 훌륭히 전변되였을뿐만 아니라 물고기사태가 펼쳐지고있다.

조선인민군 제313군부대관하 8월 25일수산사업소가 현대적으로 개건되였으며 만선의 배고통소리가 높이 울리는 속에서 최근 며칠사이에 수천t의 도루메기를 잡았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찬비가 쏟아지는것도

이랑곳하지 않으시고 머나먼 이곳 수산사업소를 또다시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부대지휘관들과 수산사업소 일군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많은 물고기를 잡으면서도 사업소를 꾸리느라 정말 수고들이 많았다고 하시면서 모두들 보고싶어 불원천리 찾아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8월25일 수산사업소의 어제날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수 없다고 하시면서 사업소가 황금해력사창조의 고향, 《단풍》호고기배들의 고향답게 훌륭히 전변되였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산사업소구내에 새로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대양의 모습을 형상한 영상작품,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지지도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령도의 손길아래 걸여온 이곳 수산사업소의 발전로정을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인민들에게 공급할 물고기문제를 두고 마음쓰신 위대한 수령님들을 현대적으로 개건된 사업소에 모시고 물고기잡이성과에 대해 보고드리

였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항상 잊지 말고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보내주는것으로써 수령님들의 평생념원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산사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물고기잡이 및 저장실내, 현대화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8월25일수산사업소에서 이번 겨울철집중어로전투 기간에 하루동안에만도 지난 시기 한해 생산량과 맞먹는 물고기를 잡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고있는데 이것은 소리쳐 자랑할만 한 성과이라고 대단히 만족해하시였다.

수산사업소의 하류장과 물고기가공장, 탕동저장고마다에 넘쳐나는 물고기를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하시면서 어로공들은 불리한 어황조건에서도 물고기사태를 안아왔으며 안해들도 모두 떨쳐나 물고기가공전투를 벌리고있는데 애국자가정들이라고 그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8월 25일수산사업소의 현대화가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사회주의바다항기 차넘치는 조선인민군 제313군부대 관하 8월 25일 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 에 서 계 속

수산사업소에서 어장탐색과 물고기잡이를 비롯한 생산과 경영활동의 정보화, 과학화를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실현할 목표를 내세우고 첨단기술을 도입

하여 기상예보체계, 해상지휘체계, 물고기 가공지휘체계, 설비 및 전력감시체계, 배수리지휘체계 등을 완벽하게 구축해 놓았다고 말씀하시였다.

수천(千)능력의 현대적인 초급동 및 맹동 시설들도 훌륭히 갖추어놓았다고 하시

면서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물고기를 공급해줄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것이 이곳 수산사업소개건에서 이룩한 가장 중요한 성과이라고 하시였다.

어로공들을 위한 편의후생시설들과 과학기술보급실도 손색없이 꾸려놓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8월25일 수산사업소가 우리 나라 수산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되었으며 몇해 사이에 기적같은 성과를 이룩할수 있는 비결은 당의 수산정책을 결사관철하려는 불굴의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한데 있다고 하시면서 전국의 모든 수산사업소들이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고 하시였다.

수산사업소의 현대화이자 물고기잡이성공이라고 하시면서 8월25일 수산사업소에서처럼 현대화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수산전선의 전투합선인 성능이 좋은 《단풍》호계열의 고기배와 현대적인 어구등을 충분히 갖추고 함께 애호관리하는것과 함께 선진적인 어로방법을 받아들여야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곳 수산사업소의 과학적인 물고기잡이방법과 경험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어로공들이 물고기잡이전투를 하면서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자면 그들에게 로동보호물자들과 식량, 기초식품, 부식물, 멜감들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물고기를 많이 잡는것은 물론 하류, 선별, 랭동, 저장, 공급에서 위생학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산사업소를 돌아보니 매일 식탁에 오른 물고기를 먹으며 좋아할 군인들과 자식들을 조국보위초소에 세운 부모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눈앞에 선히 그려진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산사업소의 구내에 차넘치는 물고기비린내, 사회주의바다항기를 맡으니 만시름이 풀린다고 하시면서 정말 희한한 풍경, 기막힌 풍경,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 흐트한 풍경이라고 웃내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 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이 한마리의 물고기라도 더 잡아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려는 마음, 자기들이 지켜선 곳이 바로 사회주의수호전의 제일선이라는 비상한 각오를 안고 투쟁한다면 그 어디서나 물고기풍년을 마련할수 있다고 다시금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3 면 으 로 계 속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사회주의바다항기 차넘치는 조선인민군 제313군부대 관하 8월 25일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2 면 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가 황금해력사창조의 기치를 들 때 우리 당에 무한히 충직한 어로전사들을 굳게 믿고 오늘을 락관하였다고 하시면서 당정책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한몸그대로 추진기가 되고 그물이 되어 당정책을 결사관철하고 있는 어로전사들이 있기에 《이체어경》이라는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새로운 선경이 펼쳐질수 있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수산정책관철의 기수,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고있는 8월25일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최고사령관을 진심으로 도와주고있는 귀중한 혁명전우, 참 좋은 동지들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해갈 은정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문화회관에서 수산사업소 예술소조원들의 공연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연을

보니 이곳 수산사업소 종업원들의 사상정신상태가 대단히 좋다는것을 잘 알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313군부대관하 8월25일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더 많은 물고기잡이성과로 맞이할 일념을 안고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빛나게 수행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인민군 제313군부대관하 8월25일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현지지도강행군길에서 자기들의 일터에 사랑의 자욱을 또다시 새기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걱정을 금치 못하면서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더 높이, 더 즐기치게 울려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문제의 본질을 외곡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에서 현실성있는 우리의 평화협 정제결재안의 정당성을 약화시켜버리는 잡소리들이 집요하게 울려나오고있다. 정부의 고위인물들이 너무나도 나서서 우리의 비핵화에 대해 떠들어대는가 하면 그 무슨 순차문제를 거론하며 그 합 리성을 읊조리고있다.

얼마전에도 미국무성 대조선정책특별대 표라는 자는 우리의 평화협정제결재안 이 순서가 잘못되었거니와 하면서 정전협정 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전에 먼저 비핵 화에서 중요한 전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이전에도 우리가 저들과 마주앉으면 우선 비핵화의지를 보여야 하 며 모든 협상의 초점도 여기에 맞추어져 야 한다는 피한 소리를 늘어놓았다.

미국의 유용납수들과 정에서 물러 난 보수쟁이들까지 이에 맞장구를 치며 비핵화타령을 넘불쳐며 외워내고있다.

미국의 주장을 한마디로 취하여면 우리 의 핵억제력포기라 평화협정제결재의 전제라는 것이다. 다시말하여 우리가 틀 을 구부린 양이 되어야만 모든 문제해 결이 가능해진다. 이것이 황당무계 한 남조도적개념이라는것은 구태어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미국이 계속 따소리하며 허여 론을 어지럽혀왔던것은 조선에서 그 부 당 성과 그들이 논리는 검은 속성에 대하여 깎아지른 수효가 없다.

미국이 우리의 평화협정제결재안 순 서가 잘못되었거니와 하면서 먼저 비핵 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그야 말 로 억지이다. 이것은 문제의 발생근원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태를 저들이 바라 는 대로 몰아가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이다.

평화협정제결재문제는 우리는 와서 새 롭게 개조되었거니와. 우리는 핵억제 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진부터 적어 말하

전쟁이 끝난 직후부터 미국에 평화협정 을 체결할것을 요구하여왔다. 그것이 조 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막고 평화를 보장할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때문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보 장을 위하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때 대한 제안을 비롯하여 주동적으 로 여러가지 평화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행 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왔다.

미국이 정적으로 평화와 반반단면 우 리의 성의있는 제안에 긍정적으로 응해 나왔음이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대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서 우리를 반대 하는 불장난소동을 벌여놓으면서 정세 를 전쟁적경계로 몰아가고 하였다.

우리는 최대한의 자체력을 발휘하면 서 계속 평화를 위한 대화의 문을 두드 리었다.

우리의 꾸준하고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 여 조미사이에의 접촉과 대화의 길이 열 려있었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이 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순서가 바뀐것이 있 지만은 최대한의 야망을 보여 미국의 요 구에도 비핵화를 위한 논의를 먼저 해보 기도 하였다. 또 핵문제와 평화협정제결 재를 동시에 논의하는 회담도 수없이 하였다.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한 우리의 자세 는 이렇게 진지하고 적극적으로였다.

문제는 지금까지 진행된 조미사이에 의 대화 접촉이 끝을 보지 못하고 모든것 이 호지부지되고있었다. 원인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있다.

미국은 대화마당자제를 불순한 목적 달성을 위한 시간비약장으로, 우리를 압 살하기 위한 공간으로 삼았다.

지난 1990년대에도 미국은 바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 당시 미국은 우리와 대화자제를 완전히 거부하고 군사적 협의 방편으로 우리를 압살하려는 기도

나 하나도 제대로 리행하지 않았다. 이 구설, 저 구설로 합의문리행을 의도적으 로 지연시키거나 회피하며 꺾꺾꺾꺾 시 간보내기를 하였다.

사실 그때 우리는 미국이 합의문을 성 실히 리행하리라는 기대를 별로 가지지 않았다. 겉과 속이 다른 미국의 행동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기때문이었다. 그 령지만 《유일초대국》이라고 으시대는 미 국이 력사상 처음으로 우리에게 대통령 의 이름으로 담보시킨까지 보내는 조건 에서 밀어보기를 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이것을 우리가 저들에게서 그 무엇을 바 라는것처럼 제멋대로 생각하면서 우리 에 대해 일방적인 요구를 제기하며 내리막 이 려 하였다. 우리는 일방적인 손해를 보 면서까지 미국의 요구에 응할수 없었다.

미국은 과편지치대로 군사적경계로 우리 를 놀려보려 하였다. 그것도 통하지 않 게 되자 나중에는 조미기본합의문을 완전히 파기해버리고말았다.

미국이 처음부터 우리와의 공약사항이 아니라 제도공포를 외쳐왔던것은 여지 없이 드러났다. 실제 미당국자들은 조미 대화를 못마땅하게 여겨며 반발하는 세 력들에게 《북조선이 인차 붕괴되었는데 격정할것이 없다.》 《경수로부본품이 북 조선에 제공되지 않으면 북조선이 붕괴될지 모르다.》는 교묘한 말발을 늘어놓 았다. 미국은 오산하였다. 우리 북괴국은 붕괴되었거니와 아니라 오히려 세계적인 정치군사강국으로 국제무대에 우뚝 솟아 올랐다.

미국이 조금이라도 리성이 있다면 여 기에서 양방향 교류를 찾아야 하였다. 그러나 나중에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대 조선적대시정책에 집요하게 매여달랐다. 대화자제를 완전히 거부하고 군사적 협의 방편으로 우리를 압살하려는 기도

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새 세기에 들어와 그 도수는 더욱 높아 졌다. 미국은 우리와는 절대로 공존하지 않겠다는것을 정책화하고 우리 북괴국을 《악의 축》이라고 하면서 적대시하였다. 미당국자가 직접 나서서 우리를 대상으로 무력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흑언을 늘어놓았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핵선제공격대상명단에 올려놓았다는것을 빼지 않고 공개하고 술한 핵무력을 동원하여 우리의 면전에서 핵발진소동을 벌여놓았다.

조선반도에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 었다. 미국이 핵공격을 휘두르면서 우리 제도를 기어어 없애버리겠다는것을 명백히 한 이상 그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였다. 그것이 바로 핵에 의한 핵으로 대응하는것이였다. 우리는 미국의 더욱 로골화되는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자 주권과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정정당당하게 핵무기를 만 들었다. 결국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 이 우리를 핵보유제로 떠밀었다.

현실은 바로 이렇다. 미국의 대조선정 책의 결과로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 고 그때마다 평화협정제결재가 제기 되었다. 우리를 적으로 보고 힘으로 압살하 려는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 정책이 우리의 핵보유를 산생시켰었다. 미국이 이러한 엄중한 사실을 의면하고 미치지 우리에게 모든 책임을 실어놓고자 하는 오도하고있었다는것은 조선반도의 평 화를 바라는 국제사회에 대한 우롱이다.

현실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 꾸어 조미사이에의 적대관계를 근원적으 로 청산하는것이 그 무엇보다 선차적인 문제로 남아있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미평화협정을 체결하는것, 바로 이것이 조미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 를 풀수 있는 기본열쇠이다.

평화보장과 잇닿아있는 사회적인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공화국은 바로 이러한 대 세를 반영하여 주동적으로 미국에 넘은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새로운 평화협정을 체결할때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새 세계가 우리의 현실적이며 실용성 있는 제안을 열렬히 지지환영하면서 하 루빨리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유말시킬수 있는 군사적충돌과 대결이 종식되고 평화 가 있을것을 바라고있다.

미국이 정적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원한다면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고대의 뜻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미국 은 이에 역행하는 길로 나아가고있다.

이반에 미국이 반보병지뢰를 조선반도 에서만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제 확정한 사실은 그것을 옹변으로 보여준 다. 더욱이 문제는 미국의 이런 반보병 지적인 공식리장발표가 최근시기 미국이 남조선과 그 주변에 핵항공모함 각종 전술기들을 들이밀어 남조선공포화공전쟁 들과 전쟁연습을 감행하고 또 미군을 조선(연세안보보외회)라는데서 유리를 겨 냥한 《작전계획 5015》, 《4D작전계 획을 놓고 공중기를 벌린것과 거의 때 를 같이하고있었다. 그것이 세계의

결과 이것을 우연한 일치라고만 볼수 없다. 여기에는 남조선에 북침전쟁의 전 조지기로, 아시아태평양지역전략실현 의 고구보로 영원히 타고있으려는 음흉한 술책이 깔려있다.

침략적인 아시아태평양양중시전략을 내 놓는 미국이 조선반도를 그것을 실현하 기 위한 전략적충충지로, 판적적인 지대 로 보고있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조선 반도를 장악하여야 이곳을 발판으로 주변대국들을 제압할수 있다는것이 바로 미국의 타산이다. 이로부터 그들은 조선 반도를 틀어쥐는것을 선차적인 전략적 과 제로 내세우고있다. 당면하게는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조선반도의 분열을 영구 화하고 남조선에 북침을 위한 전초기지 를 만들려 하고있다. 바로 이때문에 미국 은 조선반도에서만은 반보병지뢰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한것이다. 군사분계선 을 세계최대의 지뢰밭으로 만들어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자는것이였다.

## 무자비한 보복세례를 받지 않으려거든 제 소굴로 돌아가라

얼마전 미국이 워싱턴의 외신기자자락 부에서 그 무슨 보고서발표모임이라는것 을 벌려놓았다. 여기에서 국무성의 한 고 위인들은 미국이 조선반도이외의 다른 지 역에서 반보병지뢰를 사용, 구매, 저장하 는 일을 돕거나 장려하지 않을것이라느 니, 남조선과의 동맹강화와 《한위》에 전념 할것이라느니 뭐니 하는 소리를 하였다. 과연 이것도 그것이 오래동안 유지되는것 은 옳아머 때러서 앞으로 이를 계속 지속 시켜나갈까 한다고 췌쳐냈다. 오죽대 다른 지역에서는 블라도 조선반도에서만은 반 보병지뢰를 기어어 사용하지하겠다는것이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야 하였는가. 조선반도의 평화보장과 통일에 대응이 되는 행동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명백하 이다. 그야말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 일을 바라지 않고 분열만을 꾀하는 심보 가 교약한자들의 비열한 행위라고밖에 달리 말할수 없다.

미국은 의도적으로 조선반도정세를 더 욱 악화시키는 길로 나아가고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전체 조선인민과 광범한 국제사회 계는 조선반도에서 하루빨리 긴장격화의 악순환을 끝내고 공고한 평화협정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있다. 그것이 세계의

미국이 정적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원한다면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고대의 뜻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미국 은 이에 역행하는 길로 나아가고있다.

이반에 미국이 반보병지뢰를 조선반도 에서만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제 확정한 사실은 그것을 옹변으로 보여준 다. 더욱이 문제는 미국의 이런 반보병 지적인 공식리장발표가 최근시기 미국이 남조선과 그 주변에 핵항공모함 각종 전술기들을 들이밀어 남조선공포화공전쟁 들과 전쟁연습을 감행하고 또 미군을 조선(연세안보보외회)라는데서 유리를 겨 냥한 《작전계획 5015》, 《4D작전계 획을 놓고 공중기를 벌린것과 거의 때 를 같이하고있었다. 그것이 세계의

결과 이것을 우연한 일치라고만 볼수 없다. 여기에는 남조선에 북침전쟁의 전 조지기로, 아시아태평양지역전략실현 의 고구보로 영원히 타고있으려는 음흉한 술책이 깔려있다.

침략적인 아시아태평양양중시전략을 내 놓는 미국이 조선반도를 그것을 실현하 기 위한 전략적충충지로, 판적적인 지대 로 보고있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조선 반도를 장악하여야 이곳을 발판으로 주변대국들을 제압할수 있다는것이 바로 미국의 타산이다. 이로부터 그들은 조선 반도를 틀어쥐는것을 선차적인 전략적 과 제로 내세우고있다. 당면하게는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조선반도의 분열을 영구 화하고 남조선에 북침을 위한 전초기지 를 만들려 하고있다. 바로 이때문에 미국 은 조선반도에서만은 반보병지뢰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한것이다. 군사분계선 을 세계최대의 지뢰밭으로 만들어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자는것이였다.

## 붉은기높이 전진하는 조선의 사회주의위업을 지지성원하자

영국인사들 강조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 위업이 가장 큰 도전에 직면 하였을 때 평양선언 《사회주의 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지》는 채택 발표하도록 하시어 사회주의 위업을 계속 발전시켜나갈 확 고한 의지를 만현하여 표시하였다.

이전 조선과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었으나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평등도에 조선에서는 사회주의 위업을 굳건히 옹호하였다.

김정일 동 지 계 서 와

## 로씨야 반테러투쟁에서 힘을 합칠것을 호소

로씨야대통령 율라지미르 부 전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반테러 투쟁에서 힘을 합칠것을 호소하였 다.

그는 테러방지과 세계적범위 에서의 반테러투쟁에 관한 구 체적인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 다고 하면서 국제적인 반테러 협 령합성상의 필요성에 대해 강 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로씨야가 국제 테러조직인 《이슬람국가》를 반대하는 방향에서 협력을 제안 하였지만 미국은 이를 거절하였 다고 까짖었다.

또한 로씨야외무성이 최근 중 동지역에서의 안전을 도취하기 위 하여 반테러전선에서 단합할것 을 주장하였다.

외무성은 최단기간내에 테러

## 날로 우심해지는 흑인탄압만행

인권의 불모지 미국에서 흑인 들에 대한 경찰의 탄압행위가 날로 우심해지고있다.

15일 미네소타주의 미네아폴 리스에서 경찰이 부당한 혐의 를 들쭉취워 파타르 클라크라고 하 는 흑인남성의 손목에 수갑을 채 우고도 성차지 않아 죄가 없다고 항변하는 그에게 수갑을 가하여 중상을 입혔다. 이날 이 광경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경찰의 만 행에 분노를 표시하고 이를 공정 하게 판결할것을 요구하여 시위 에 떨쳐나섰다.

그들은 프랑카드들을 들고 북 을 두드리면서 경찰서에 물려가 살인경찰의 죄행을 신랄히 규탄 하였다. 항의기운이 거세지자 경 찰들이 시위군중에 대한 탄압소 통에 광분하였다.



## 살판들 일어나는 피난민

피난민위기로 유럽이 뒤흔들리고있다. 수리야와 이라크 등 중 동과 북아프리카 나라들에 수 많은 피난민들이 유럽에 밀려들어 가면서 제 2 차 세계대전 이래 가 장 엄중한 피난 민위기가 조성되 었다.

국제이민기구 가 통보한데에 의 하면 올해 지중 해를 통해 유럽 으로 들어간 피 난민수는 72 만명에 넘어가 다. 유럽에 이웃 나 라 들 에 는 2 0 0 0 만 명 의 잠재적인 피난민들이 있 다고 한다.

하지만 실 각 한 피난민위기는 어떻게 산생 된것인가.

얼마전 중국의 한 정세전문 가 는 유럽피난민위기가 발생한 계 원 주된 원인은 미국 등 서방나라들이 《중동민주화,

《아랍의 봄》 등의 미명하에 합 법적으로 선거된 정부들의 《정 건개혁》을 폐한데 있다고 주장 하면서 세계적인 인도주의적대 난을 몰아온 미국과 서방을 비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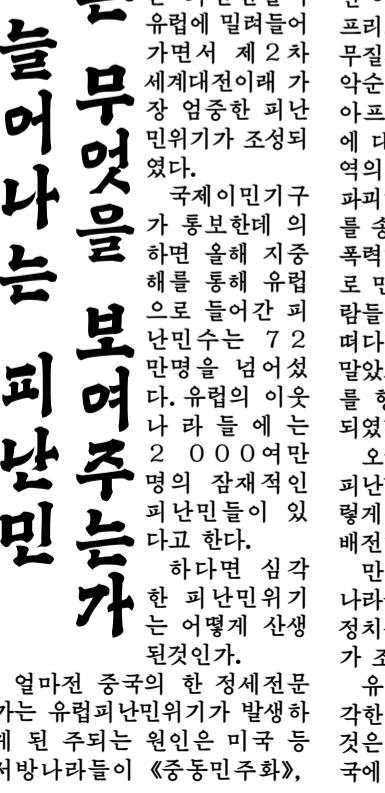
그리고 파견된 관계가 아니다. 《격결핵형》, 《민주화형형》으로 명명된 《아랍의 봄》 등에 의한 전격적세는 새 세기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대행되었다. 튀니 지, 예멘 등의 나라들에서 일어 난 이념정권들의 붕괴는 북아프 리카와 중동나라들을 사회적 무질서와 혼란, 테러와 보복의 악순환속에서 빠뜨려놓았다. 특히 아프리카, 이라크, 리비아에 대해 탄압정권정착은 이 지 역의 도시와 마을을 흑흑하게 파괴하고 사람들의 삶의 거처지 를 송두리째 들이쳤다. 살인과 폭력행위가 횡행하는 탄압관오 만을 이루었다. 그로 하여 사 람들은 살 곳을 찾아 정처없이 떠다니는 방랑객으로 전락되고 갈망으로 인한 이념의 대부대 를 형성하고 유럽으로 향하게 되었었다.

미국은 이라크전쟁을 일으킬 때 이 나라에 《연영》과 《부흥》, 《자유》와 《민주주의》를 가져다 주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오 늘날 이라크의 현실은 어떠한 가. 혼란과 무질서, 테러와 총틀 의 악순환만이 계속되고 이라크 는 어디나 흑대밭으로 되었다.

이라크사람들은 미국이 이라 크를 침공할 당시까지만 하여도 자기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의 자기 도메랄것이라는 환상을 사 로 잡혀있었다. 하늘에 그들은 자기 나라 땅을 점령하려고 쳐 들어오는 미군을 거리에서 떨쳐나 와 환영하지 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연영》과 《부흥》을 가져 다줄것으로 기대하였던데에 이 라크에서는 수백만명에 달하는 피난민이 발생하여 기약할수 없 는 때들이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미국이 정적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원한다면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고대의 뜻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미국 은 이에 역행하는 길로 나아가고있다.

이반에 미국이 반보병지뢰를 조선반도 에서만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제 확정한 사실은 그것을 옹변으로 보여준 다. 더욱이 문제는 미국의 이런 반보병 지적인 공식리장발표가 최근시기 미국이 남조선과 그 주변에 핵항공모함 각종 전술기들을 들이밀어 남조선공포화공전쟁 들과 전쟁연습을 감행하고 또 미군을 조선(연세안보보외회)라는데서 유리를 겨 냥한 《작전계획 5015》, 《4D작전계 획을 놓고 공중기를 벌린것과 거의 때 를 같이하고있었다. 그것이 세계의



미국이 정적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원한다면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고대의 뜻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미국 은 이에 역행하는 길로 나아가고있다.

이반에 미국이 반보병지뢰를 조선반도 에서만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제 확정한 사실은 그것을 옹변으로 보여준 다. 더욱이 문제는 미국의 이런 반보병 지적인 공식리장발표가 최근시기 미국이 남조선과 그 주변에 핵항공모함 각종 전술기들을 들이밀어 남조선공포화공전쟁 들과 전쟁연습을 감행하고 또 미군을 조선(연세안보보외회)라는데서 유리를 겨 냥한 《작전계획 5015》, 《4D작전계 획을 놓고 공중기를 벌린것과 거의 때 를 같이하고있었다. 그것이 세계의

미국이 정적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원한다면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고대의 뜻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미국 은 이에 역행하는 길로 나아가고있다.

이반에 미국이 반보병지뢰를 조선반도 에서만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제 확정한 사실은 그것을 옹변으로 보여준 다. 더욱이 문제는 미국의 이런 반보병 지적인 공식리장발표가 최근시기 미국이 남조선과 그 주변에 핵항공모함 각종 전술기들을 들이밀어 남조선공포화공전쟁 들과 전쟁연습을 감행하고 또 미군을 조선(연세안보보외회)라는데서 유리를 겨 냥한 《작전계획 5015》, 《4D작전계 획을 놓고 공중기를 벌린것과 거의 때 를 같이하고있었다. 그것이 세계의

## 국가채무한계선을 통해 본 미국의 종말

얼마전 미국에서 정부예산이 채택되었다.

앞으로 2년동안에 연방정부 예산을 800억US\$ 늘이는것 과 함께 2017년 3월까지 국가채무한계선을 없애는것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지금 오바 마는 이로서 자기 임기말까지 국가채무한계선을 놓고 골머리를 썩지 않게 되었다고 큰숨을 내쉬고있다.

국가채무한계선은 미국이 돈 을 쓸데없이 쓰는 제선이다. 즉 국가채무가 한도액에 도달하면 더는 자금을 쓸수 없다.

현재 미국이 법적으로 정해놓 는 국가채무한계선액은 18 조 1 3 0 억 US\$이다.

그야말로 엄청난 수자이다. 하지만 미국은 왜 이 지경에 빠지게 되었는가.

미국의 국가채무액은 지금까 지 눈덩이같은속도로 계속 불어만 갔다.

2011년의 국가채무액이 14 조 US\$라는것을 상기해볼 때 4년동안 4 조 US\$나 더 불 어난것으로 된다. 분석자들은 이 속도로 나가자면 미국이 며칠도 지탱해볼수 없겠거니와

지금까지 미국은 국가채무한 계선을 계속 올리면서 정부부채 를 모면해왔다. 말하자면 이는 국가가 채무를 지지 말아야 한 다고 한계선을 그어놓는데는 멀 러놓음으로써 다시 채무를 지는